

작년 가구당 월평균 240만원 써...코로나에 역대 최대 2.3% ↓

2011년 이후 지출액 가장 적어...3년 연속 감소세
거리두기 영향에 숙박·교통·오락 등 지출 줄어
식료품 소비 늘고...마스크 구입 등에 보건비 증가
가구주 60세 이상 소비 ↑...‘집콕’ 식료품 구입 늘어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소비도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출을 자제하면서 집에서 먹을 식료품에 쓰는 돈은 늘었지만 쇼핑과 여행, 문화생활 등에 대한 씀씀이는 급격히 줄었다.
8일 통계청이 내놓은 ‘2020년 연간 지출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소비 지출은 240만원으로 전년 대비 2.3% 감소했다.

이는 1인 가구를 포함해 통계를 작성한 2006년 이래 최대 감소 폭이다. 지출액은 2017년(255만7000원) 이후 4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며 이 기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단, 통계청은 2019년부터 조사 방법을 바꿨기 때문에 직접적인 시계열 비교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12개 항목별 소비 비중을 보면 식료품·비주류음료(15.9%), 음식·숙박(13.3%), 교통(12.0%), 주거·수도·광

열(11.9%), 보건(9.2%), 기타 상품·서비스(8.5%) 순으로 높았다.
이러 교육(6.6%), 오락·문화(5.8%), 가정용품·가사서비스(5.3%), 통신(5.0%), 의료·신발(4.9%), 주류·담배(1.6%)가 뒤를 이었다.
2019년과 비교해 지출이 늘어난 항목은 식료품·비주류음료, 주류·담배, 주거·수도·광열, 가정용품·가사서비스, 보건 등 5개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재택근무 등으로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관련 지출도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세부적으로 식품·비주류음료 지출액은 38만1000원으로 전년 대비 14.6% 늘었다.
식료품 소비 증가와 가격 인상으로 육류(6만원, 23.8%), 채소 및 채소가공품(4만1000원, 23.2%), 육류가공품(1만4000원, 18.7%), 신선수산물(2만2000원, 18.3%), 곡물가공품(1만9000원, 18.2%) 등 구입에 지난해보다 많

은 돈을 썼다.
같은 기간 주거·수도·광열에는 전년 대비 3.3% 늘어난 28만6000원을 썼다.
실제 주거비(9만9000원, -0.5%)는 감소했지만 주택 유지 및 수선(3만1000원, 16.1%)과 연료비(8만1000원, 1.8%) 등 지출은 증가했다.
정규현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실제 주거비에는 전세와 월세 비중이 가장 크다”며 “최근 들어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면서 주거비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보건 지출은 22만1000원으로 9.0% 뛰었다. 영양보조제, 마스크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의약품(5만8000원, 6.3%), 의료용 소모품(1만5000원, 166.5%)에 쓰는 돈이 그만큼 늘었다.
가정용품·가사서비스 지출은 9.9% 늘어난 12만7000원이다. 가구 및 조명(2만원, 12.5%), 가전 및 가정용기기(4만1000원, 10.5%) 품목의 지출이 늘었다.
주류·담배에는 4.8% 증가한 3만8000원을 썼다. 주류 지출액은 1만6000원으로 13.7% 늘었고 담배는 2만2000원으로 0.7% 줄었다.
식당·술집·카페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집합금지 조치가 이뤄지면서 주류 판매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음식·숙박, 오락·문화, 교육, 의료·신발, 교통, 통신, 기타 상품·서비스 등 7개 항목의 지출은 2019년에 비해 쪼그라들었다.
음식·숙박 지출액은 31만9000원으로 7.7% 줄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 조치로 인해 외식 및 주점 등 식사비(-7.4%)와 숙박비(-15.8%)에서 큰 감소 폭을 보였다.
교통에는 2.4% 감소한 28만9000원을 썼다. 자동차 구입(10만7000원, 15.2%)은 늘었지만 운송 기구 연료비(8만9000원, -7.8%)는 줄었다.
교육 지출액은 22.3% 대폭 줄어든 15만9000원으로 집계됐다. 고교 무상 교육 확대 시행 등으로 학원 및 보습 교육(11만2000원, -20.3%), 정규 교육(4만5000원, -21.5%)에 들어가는 돈이 줄었다.
오락·문화 지출액도 22.6% 감소한 14만원이다. 단체여행비(1만원, -79.8%), 운동 및 오락서비스(2만원, -26.5%) 등에서 지출이 크게 줄었다.
통신과 의료·신발 지출액은 각각 2.6%, 14.5% 줄어든 12만원, 11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비 지출을 보면 1인 가구(132만원, -7.4%), 2인 가구(204만원, -1.6%), 4인 가구(369만4000원, -0.7%), 5인 이상 가구(397만2000, -2.5%)는 1년 전보다 쓴 돈이 줄었다.
반면 3인 가구(301만원, 1.0%)는 소폭 늘었다.
1인 가구는 식료품·비주류음료(9.4%), 주거·수도·광열(1.0%), 보건

(7.7%)에서 지출 규모가 증가했다. 교육(-40.2%), 교통(-33.0%) 지출액은 크게 줄었다.
4인 가구는 식료품·비주류음료(18.1%), 가정용품·가사서비스(15.6%), 교통(11.5%) 항목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교육(-23.1%), 오락·문화(-22.5%) 등은 지출액이 감소했다.
가구주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가구(169만7000원, 2.1%)에서만 지출이 늘었다.
이외에 40~49세 가구(309만원, -3.4%), 50~59세 가구(278만3000원, -2.2%), 39세 이하 가구(237만6000

원, -2.6%) 순으로 지출액이 많았다.
40~49세 가구는 식료품·비주류음료(19.2%), 가정용품·가사서비스(14.1%), 보건(12.8%) 등에서 1년 전보다 돈을 더 썼다. 교육(-24.2%), 음식·숙박(-12.0%), 통신(-6.7%) 등에 나가는 돈은 줄었다.
정 과장은 “가구주가 60세 이상인 경우 코로나19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식료품 구입이 늘었고 이 때문에 지출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며 “가격 상승 요인도 소비에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서선욱 기자



롯데백화점, 유로리프 인증받은 유기농 와인 판매 7일 서서울시 중구 소공동에 위치한 롯데백화점 본점 지하1층에서 모델들이 '유기농 와인 7종'을 홍보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유럽 최대 유기농 인증기관인 유로리프(Euro-Leaf)의 인증을 받은 7종의 유기농 와인을 새롭게 선보인다.

클로버장난감 할인백화점 광주 상무점 개장...호남 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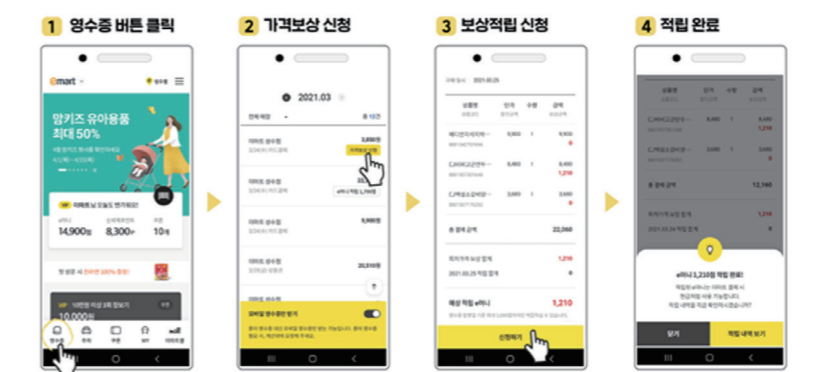
대형할인점보다 저렴
호남 최대 규모의 장난감 할인백화점이 광주 상무지구 신구 개장에 어린 고객 사로잡기에 나섰다.
클로버장난감할인백화점은 오는 10일 광주 상무지구 인근에 문을 여는 장난감 할인백화점이 본격 영업을 개시한다고 8일 밝혔다.
클로버장난감할인백화점 상무점(광산구 상무대로 537)은 지난 2017년 광산구에 문을 연 신창점에 이어 두 번째이다.
연면적 1487㎡(450평), 부지면적 595㎡(180평)에 방문 고객 편의를 위해 넓은 주차장(상무점 최대 30대·신창점 100대)도 갖췄다.
클로버장난감할인백화점은 상무점 개점으로 호남권을 대표하는 장난감 관련 카테고리 킬러(Category Killer)형 매장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상무점과 신창점에는 유아와 어린



이들이 선호하는 모든 종류를 장난감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지능 개발에 도움을 주는 레고(LEGO)를 비롯해 실바니안패밀리, 자동차 번신 로보 헬로카봇, 인기 애니메이션 '신비아파트', 떠오르는 유아완구 '베이비버스', 여아용 인형의 강자인 '미미'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
여기에 클로버장난감할인백화점은 각종 완구류 판매 총판을 맡고 있어 유통단계를 줄임으로써 '가격 파괴형 장난감 백화점'으로도 유명하다.
클로버장난감할인백화점 관계자는 “매장을 찾는 고객들이 취향에 따라 다양한 제품을 비교, 구매할 수도 있다”며 “모든 제품을 일반 대형할인점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윤희 기자

이마트,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쿠팡 보다 비싸면 보상

가공·생활용품 인기 상품 500개 대상
온라인보다 비싸면 차액 'e머니'로 보상



이마트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 전면 개편을 통해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가격 비교 대상은 쿠팡의 로켓배송 상품, 롯데마트몰과 홈플러스몰의 점포배송 상품에 대해 상품 바코드를 기준으로 동일상품 동일용량과 비교한다.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는 구매 당일 오전 9~12시 이마트 가격과 쿠팡, 롯데마트몰, 홈플러스몰 판매 가격을 비교해 고객이 구매한 상품 중 이마트

보다 더 저렴한 상품이 있으면 차액을 'e머니'로 적립해준다.
'e머니'는 이마트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마트 앱을 통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이마트 앱 전용 쇼핑 포인트다.
가격 비교는 3개 유통 채널 판매가 중 최저가격과 비교해 차액을 보상해 준다. 예를 들어 이마트에서 1500원에 구입한 상품이 쿠팡에서 1000원, 롯데마트몰에서 1100원, 홈플러스몰에서 1200원인 경우 최저가격 1000원과 비교해 고객이 구매한 상품 중 이마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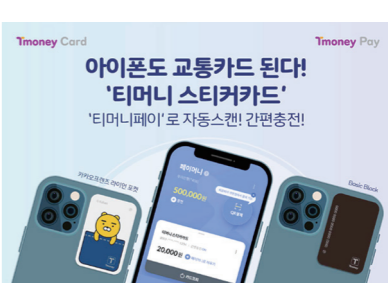
해 준다.
가격은 이마트앱이 자동으로 비교하며, 고객은 앱을 통해 간편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차액을 보상 받기 위해서 고객은 이마트 앱 좌측 하단의 '영수증' 탭에 들어가 구매 영수증 목록의 '가격보상 신청'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된다. 가격보상 신청 버튼을 누르면 실시간으로 적립되며 구매일 기준 1일 최대 3000점까지 적립 가능하고, 사용 기한은 30일이다.신청 가능 기간은 구매일 기준 익일 오전 9시부터 7일 이내다.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 대상 상품은 가공·생활용품 매출 상위 상품 중 가격 비교 대상인 쿠팡, 롯데마트몰, 홈플러스몰 중 한국 시장에서 취급하는 상품 500개를 각 카테고리별 바이어가 선정한다.
대표품목으로는 신라면, CJ햇반, 서울우유, 코카콜라, 삼다수 등 각 카테고리 1위 상품을 비롯해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 칠성사이다, 새우깡, 케라시스 샴푸, 리스테린, 크리넥스 두루마리 휴지 등이 있다.
최이슬 기자

아이폰으로 교통카드 이용...답은 '티머니 스티커카드'

신규 스티커카드 2종 출시...‘베이직 블랙’ ‘라이언 포켓’

근거리 무선통신(NFC : Near Field Communication) 결제기능이 없는 아이폰에서도 '티머니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티머니는 클라우드 기반 간편결제 플랫폼 '티머니페이(TmoneyPay)' 서비스 개선을 통해 국내 아이폰 사용자들의 교통카드 사용 편의성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티머니페이'는 간편하게 교통카드 충전·잔액조회·사용내역 확인 등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티머니는 새로운 디자인의 '티머니 스티커카드' 2종도 선보였다. '티머니 스티커카드'는 아이폰 뒷면에 손쉽게 부착해 대중교통은 물론 전국 10만여 티머니 제휴업체 등 다양한 오프라인

결제를 할 수 있는 상품이다.
티머니는 아이폰 사용자들의 더 편리한 교통카드 사용을 위해 '간편충전 서비스'를 도입했다.
아이폰 사용자는 '티머니페이'를 깔고 간편충전을 설정하면 앱 실행만으로 '티머니 스티커카드'를 자동 스캔해 충전할 수 있다.
티머니는 티머니페이 서비스 개선과 신규 티머니 스티커카드 출시를 기념해 다양한 혜택을 마련했다.
고객은 1만2900원인 티머니 스티커카드를 11번가 및 네이버스토어에서 3000원 할인을 받아 9900원에 구매하고 무료로 배송 받을 수 있다. 또 티머니페이에 '티머니 스티커카드'를 등록하거나, 티머니페이 앱에서 '페이머니'를 통해 '티머니 스티커카드'를 충전



하면 각각 2000T마일리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티머니 Payment&Platform 사업부 장성재 상무는 “작년에 첫 선을 보인 '티머니 스티커카드'가 큰 인기를 끌며 아이폰 사용자들의 교통카드 사용에 대한 갈증을 풀어주었다”며 “향상된 서비스와 다양한 디자인으로 아이폰 사용자들의 더 스마트하고, 더 편리한 교통카드 사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정 기자